

터뷰 / 한국수미다 노조위원장 정현숙

회사측의 일방적 공장폐업과 집단해고에 맞서 지난해 11월 일본으로 건너가 3개월에 걸 교섭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미다노조의 정현숙 노조위원장(24)이 체류기간 연장을 비자갱신을 목적으로 잠시 귀국, 노동자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자리에는 '한국수미다노조와 연대하는 모임'을 결성, 수미다노조의 일본내 활동을 지원해오다 함께 내 오쿠라 가주요시신부(55)도 같이했다. 이들 일행은 12일로 예정되어있는 수미다본사와 항의집회의 준비를 위해 10일 오전 김포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자기업 횡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어요” 정현숙 위원장 출기업 근로조건 열악 심각성 깨달았다” 오쿠라 신부

〈정현숙 위원장 인터뷰〉

개월간의 교섭투쟁 중 가장 큰 성과는

일본인투자기업체의 횡포를 일본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 수미다, 아세아스와 TND노동자들의 도일 교섭투쟁으로 이가 일본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환기된 것. 가장 큰 성과다.

수미다측과의 11차에 걸친 교섭내용과 결

집단해고철회, 임금지급, 공장재가동 검토. 골격으로 한 10차교섭내용을 재확인했으. 수미다측의 일방적 퇴장으로 진전을 보지. 11차교섭에서 집단해고철회가 결정되. (으나 문서화되진 못했다. 수미다측에서 마지막 교섭에서 문서화시키자고 주장하

다. 지금까지의 투쟁 중 특정 개인이나 단체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조

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 받은 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주 (시사저널)로 부터 조총련과의 관계여부

골격으로 의심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과는 전혀 무관하다.

한국대사관에서 협조받은 일은?

협조는 바라지도 않는다. 오히려 현재까

한국대사관 노동관측에서는 본사측과의

자세를 이간질해왔다. 노동관은 본사와

측을 오가며 서로의 입장을 감정적으로



외자기업의 횡포에 맞서 도일 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수미다 정현숙 노조위원장 과 일본내 '한국수미다노조와 연대하는 모임'을 결성 지원해온 오쿠라 신부.

치켜세우는 방해공작을 더이상 중지하기를 바란다.

▲아세아스와니, TND와의 공동투쟁은 이루어지고 있나?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출기업'의 문제가 특정 사업장에서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한국내 공동의 문제임을 일본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그 이상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향후 투쟁계획은?

=기본적으로는 해고철회사항을 문서화하

는 것이다. 해고철회문제가 임금지급, 공장재가동 등과 함께 3월부터의 자진퇴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락할 수 없다. 고용, 근속, 임금, 노조 승계가 검토되지 않는 한 수미다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승계문제를 전제로 수미다측과의 교섭을 계속하겠다.

〈오쿠라 가주요시신부 인터뷰〉

▲한국수미다노조의 일본내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87년 1월 '진출기업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회원들과 함께 89년 2월 방한, 한국노와 한국수미다 한국산본 노동자들과 교류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인 투자기업체의 한국내 근로조건열악상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는데 작년 1월 서울에 있는 수녀 한분으로 부터 도입하게된 수미다노조 대표들을 소개받고 지원활동을 시작하게됐다.

▲'한국수미다노조와 연대하는 모임'의 지금까지 활동은?

=연극공연, 슬라이드 상영 등을 통해 일본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수미다노조 대표들의 모든 활동에 항상 같이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반응이나 여론은?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존권 쟁취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보고 안타까와 하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시민·학생 등 2백여명이 일본 수미다 본사 앞 항의시위를 할 때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투쟁'이라는 한국말을 배워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특히 NHK방송에서 이번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하기도 해, 팩시밀리 한장으로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회사측의 조치에 크게 분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을 지켜보며 느낀점은?

=우선 젊은 여성노동자들이라는데 놀랐다. 일본 청소년 대부분이 향락을 추구하거나, 소수 의식있는 젊은이들은 반전·반핵을 감상적으로 외치고있는데 비해 생존권투쟁을 철저한 자세로 전개해나간다는 데서 한국여성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들의 자세를 지켜보며 일본 여성들도 많이 느끼고 깨어나려 노력하고 있다. (마산지국 박유제 기자)